진화하는 '파밍'… 정상 금융거래 중에도 눈뜨고 당한다

신종 전자금융사기 '메모리 해킹' 피해 속출

개인 PC에 악성코드 심어
은행거래 중 정보 빼돌려
광주서 500만원 인출
두달간 전국서 7억원 피해
당국 대책은 전무한 상태

'낚시 문자'는 이제 고전 수법, 정상적인 금융거래 진행중 예금을 빼가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

전자금융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상태나 마찬가지다.

돌 잔치 초청장에서 긴급 출석 요구서까지 예금주의 통장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최근에는 진짜 금융권 사이트에서도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신종 수법인 '파밍'마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신종 사기 주의보= 지난 8월 경기도 파주에 사는 박모(35·회사원)씨는 계좌 이체를 위해 자신의 PC로 XX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계좌이체 금액과 보안카드 번호까지 입력했지만 갑자기 오류 화면이 뜨며 다시 입력해 달라는 메시지가 떴다. 또 입력해봐도 오류 화면은 그대로였다. 이 순간 박씨의 PC에 미리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해커는 보안카드 정보를 빼돌렸고, XX은행 광주지점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뒤 사라졌다. 박씨는 광주서부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이 같은 신종 파밍수법인 '메모리 해킹'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해커가 PC에 미리 심어놓은 악성코드는 이용자가 금융사 정상 사이트에 들어가 금융 업무를 보는 와중에 화면을 정지시키거나 반복적인 오류를 발생시켜 이용자의 주의를 돌린 후 동시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지난 6월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신종 수법으로, 2달 동안 전국적으로 모두 112건의 피해 사실이 접수돼 7억여원의 피해가 났다.

금융당국은 26일부터 300만원 이상 금융 거래시 전화와 메시지로 본인 인증을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지만,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PC가 악성코드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금융거래를 했다면 금융사와 피해자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파밍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은행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경찰 출석 요구서까지 스미싱 기승= 돌잔치 초청장, 청첩장 등에서 이제 '법원 출두 요구서'에 이어 '경찰서 긴급 출석 요구서'까지 등장했다. 아직도 상당수가 '알고도 당하는'스미싱 문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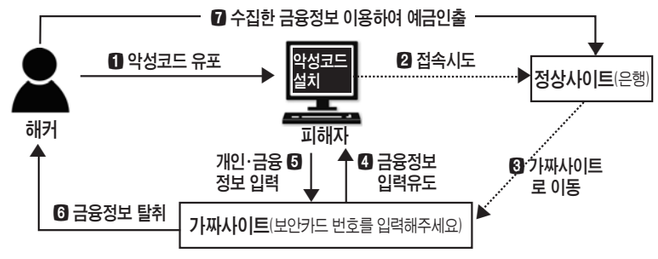
지난 24일 밤에는 순천경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대량 발송돼 경찰이 애를 먹기도 했다. '[순천경찰서] OOO님 사건번호(13-093157) 관련 긴급출석요구서/내용확인'이라는 메시지로, 이를 확인하려면 정체불명의 인터넷 주소(sc-police.co.kr)에 접속하라는 내용이다.

메시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데다가, 명시된 공공기관에서 보낸 문자라는 점에서 피해 발생도 적지 않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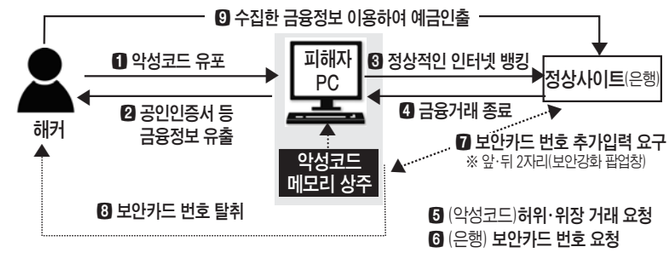
순천경찰 관계자는 "(우리)경찰서를 사칭한 문자와 관련한 전화 문의가 수십여 건에 이른다"며 "문자든 문서든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유선상으로 경찰서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기존 파밍 수법



■ 메모리 해킹 방식 파밍 수법



'떡값 교장' 직무연수로 학교 떠나

광주교육청, 전보인사 방침

'명절 떡값'을 받아 해임됐다가 원직 복귀한 초등학교 교장이 국내 직무연수를 받으려 2개월여동안 학교를 떠났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아 해임됐다가 최근 복직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 A교장에 대해 11월 말까지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A교장은 이날부터 11월 말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운영하는 교육행정 지도자과정 직무연수를 받는다.

장 교육감은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어 A교장을 직무 연수에 보내기로 했다"며 "연수를 마치면 내년 3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00억 투자 사기' 전기차 업체 대표 영장

영광경찰, 15명 조사 중

영광경찰이 25일 대마산단 내 전기자동차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한 500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을 벌인 혐의(사기)로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E사 대표 소모(6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E사 측은 자회사 간부임을 사칭한 일당이 벌인 행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소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을 영광군 대마산업단지 내 입주한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E사 대표로 소개한 뒤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투자자들에게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장외주식을 주당 3000원에 판매해 50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E사 자회사임을 사칭한 B회사 간부 정모(58)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영광경찰은 이들 외에 500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 15명을 조사중이다.

한편, 영광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업체 E사의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사건으로 2947명이 피해를 봤고 피해액만 5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철 속의 폴리 25일 광주 시민들이 지난주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간 광주 폴리(Folly) Ⅱ '탑구자의 전철'(락스 미디어 콜렉티브 작)을 이용하고 있다. 이 작품은 광주 도심 곳곳에 공공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광주 폴리 프로젝트 중 하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읍참경찰'

광주경찰, 음주운전 경찰 해임 이어
술자리 동석한 상관·동료까지 징계

광주서부경찰이 징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음주 운전 근절에 치안력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 해임된 뒤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직속 상관 및 동료 직원들도 줄줄이 '경고'조치를 받으면서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부경찰은 지난 23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50) 경위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A 경위는 지난 6일 새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다.

광주지방청은 또 A 경위와 회식 술자리를 가졌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내렸다. 서부경찰 형사과장의 경우 지휘 책임을 물어 동부경찰서로 전보 조치하는 한편, 경찰청에 보고했다. 광주지방청에서 문책성 인사로 상급자 지휘 책임을 묻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B 경감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조치를 내렸다.

정순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해당 직원을 징계조치했고 상급자에 대해서는 처음 문책성 인사로 책임을 물었다"면서 "나머지 직원들도 인사 조치하려고 했지만 수사 기능의 저하를 우려해 경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교통사고 잠적 경찰 무혐의

광주청, 사건경위 진상조사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새벽 1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택시를 들이받고 잠적, 4일 만에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된 것과 관련, 광산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외제차 고의 교통사고 수억 보험금

쌍나팔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면서 고의로 단독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4명이 경찰서행.

○…2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8)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시내 곳곳에서 고의 단독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

○…선·후배 또는 친구사이인 이들 일당은 한 차에 3~4명씩 탄 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경찰에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음성카운터](주택용) 5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주택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신양파크호텔 채용정보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숲속의 궁전 **신양파크호텔**에서 함께 근무할 신입, 경력사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모집부분		모집인원	자격요건
재경(회계)	경력	0명	– 회계결산 가능자 – 해당분야 직무 경력 5년 이상 – 운전 가능자 우대 – 상경계열 전공자 우대
프론트	신입 경력	00명	– 전문대학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 호텔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호텔관련 실습, 경력자 우대 – 외국어 가능자 우대(영어, 중국어, 일어)
벨맨	신입 경력	00명	– 전문대학 또는 2014년 2월 졸업예정자 – 호텔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호텔관련 실습, 경력자 우대 – 운전 가능자 우대 – 외국어 가능자 우대(영어, 중국어, 일어)
룸메이드	신입 경력	00명	– 학력 무관 – 해당분야 직무 경력자 우대
조리	신입 경력	00명	– 학력 무관 – 해당분야 직무 경력자 우대

전형방법

서류전형 → 서류합격 통보 → 면 접 → 최종합격 통보

☞ 당사 홈페이지 또는 채용담당자 E-mail을 통한 입사지원
★홈페이지 : www.shinyangparkhotel.com 또는 h0104kj@nate.com
★채용문의 : 인사팀 062)221-4172
관리부장 062)221-4500(010-3624-8589)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미화 방수 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